

“진리의 법고를 울리자”

14일, ‘2009 포교결집대회’ …전국서 1만2천여 명 동참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의 한 가운데에 만다라가 놓였다. 만다라를 따라 15명의 스님들이 자리하고, 그 외곽에는 수백명의 포교사들이 둘러 앉았다. 그리고 1만여석의 무대는 전국에서 온 신도들로 가득 채워졌다.

서울 대성사 주지 범안스님의 집전을 따라 1만2000여 불자들이 표준 금강경 한글본을 낭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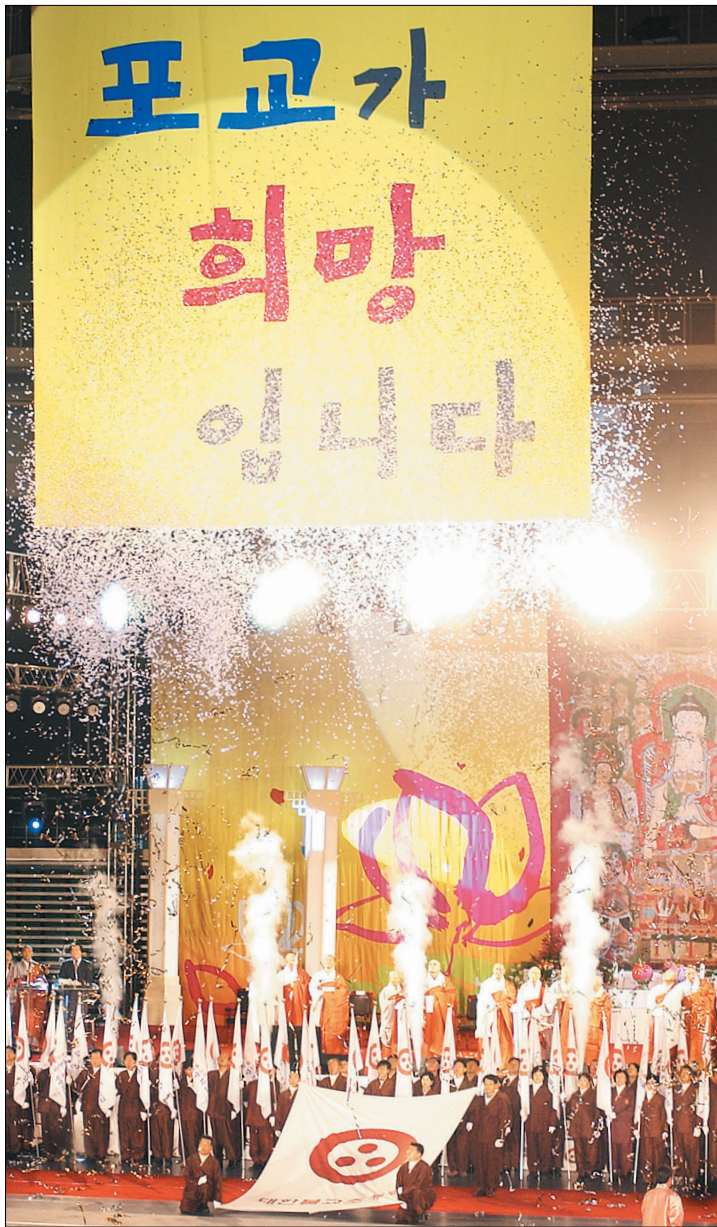
조계종 포교원(원장 해총스님)이 전국 신도단체, 불교대학 및 포교단체 임원 및 회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2009 포교결집대회’가 지난 14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됐다. ‘포교가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린 이 행사에는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 원로의원 도문스님, 중앙총회의장 보선스님, 전 포교원장 도영스님 등 300여 명의 스님들과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을 비롯한 1만2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결집대회는 1부 금강경 독송에 이어 2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포교활동 소개 및 포교실천 결의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2부 결집대회에서 포교원장 해총스님은 대회사들을 통해 “포교원 설립 이후 산하의 모든 포교·신도단체와 전문교육기관, 종립학교 등 포교활동의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전 중정예하는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자비스런 구름을 일으켜서 교화의 법문을 굴리고 진리의 법고를 울려서 종풍을 드높이는 법석”이라고 법문했다.

3부 포교역량한마당 행사는 불교크리에이션협회 회원들의 율동과 체육인불자 태권도 시범단의 합창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포교대상 시상식을 겸한 3부 행사에서는 축구선수 박지성 씨와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정성숙 용인대 교수, 불자가수 김흥국·김국환 씨, 종립학교 교장에 대한 명예 포교사 위촉식이 열렸다. 박지성 선수는 부모님이 대신 수상했다. 이어 가진 포교대상 원력상 시상



지난 14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1만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9 포교결집대회’가 전국 포교 신도·신행단체들의 빛깔이 들어서면서 본격화됐다. 신재호 기자

식에서 울산 월봉사 주지 오심스님을 비롯한 각 분야의 포교에 앞장선 불자 12명에게 원력상을 시상하며 격려했다. 시상식에서는 불자 개그맨 이수근 씨의 즉석 노래 공연 등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어 어린이포교에 진력한 송광사 율주 지현스님과 한갑진 한진흥회 회장,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 등에 게 포교대상 공로상이 수여됐다. 또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용주사 외국인 한국어 학교, 각원사·통도사 불교대학,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스님, 방송인 김병조 씨에

게 포교대상 특별상을 각각 수여했다.

이날 행사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포교대상에 선정된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스님에 대한 시상식, 스님의 업적을 담은 동영상 상영에 이어 포교대상이 수여됐다. 도문스님은 “이 상의 주인공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포교사, 불자들”이라며 백용성 스님의 유언을 소개하고 “포교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상금 500만원을 포교원에 전달했다. 5시간 동안 진행된 포교결집대회는 사홍서원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관련기사 5면

안익수 기자 jsahn@ibulgyo.com

“대화합 이루고 종단 발전시키라”

법전 중정예하, 제33대 집행부 예방받고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제33대 신임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과 함께 지난 14일 중정예하의 주석처인 해인총림 해인사 퇴설당에서 법전 중정예하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제33대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은 종단운영에 대한 기초보고와 함께 취임인사를 했다.

‘고 김영환 장군 추모제’에 앞서 오전9시에 법전 중정예하를 찾은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신임집행부 스님들은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의 안내로 퇴설당을 찾아 중정예하를 예방하고 삼배의 예로 출범인사를 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원장 현승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 기획실장 원담스님, 문화부장 효탄스님, 사회부장 해경스님, 호법부장 덕문스님, 사서실장 경우스님과 교육원 교육부장 법인스님, 불학연구소장 원철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중정예하는 “총무원장과 교육원장, 총무부장이 힘을 합쳐 대화합을 이루고 앞으로 종단을 잘 발전시키라”고 당부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중정스님의 뜻을 받들

어 종단을 잘 이끌겠다”고 답했다. 또한 중정예하는 총무부장 영담스님으로부터 “신임 총무원장의 종단 운영기조가 소통과 화합”이라는 보고를 들은 뒤 “내가 바라는 것이다. 예감이 좋다”며 집행부를 격려했다.

덕담의 자리를 마친 후 중정예하와 집행부 스님들은 기념촬영을 가졌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교육원장 현승스님은 김영환 장군 추모제에 참석했으며, 영담스님 등 부·실장 스님들은 종단운영에 관한 논의를 위해 청주 보살사를 방문해 원로회의 의장 종산스님을 예방했다.

총무원 ‘직지대母’ 위문

한편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스님들이 지난 14일 오후 수원 성민센터 병원에서 투병중인 ‘직지의 대모(大母)’ 박병선 박사를 위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 문화부장 효탄스님, 사회부장 해경스님, 호법부장 덕문스님 등이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효탄스님은 “의지를 갖고 속히 일어나셔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 달라”고 위로했다. 해경스님과 덕문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4일 제33대 신임 총무원, 교육원 집행부 스님들과 함께 법전 중정예하(앞줄 가운데)를 예방했다. 사진제공=해인사

님도 “불교계 은인(恩人)이신 박사님의 건강회복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다”며 쾌유를 기원했다. 이와 더불어 스님들은 총무원 부·실장스님들이 심사일반으로 모든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에 박병선 박사는 “이렇게 고귀하신 분들이 여기까지 찾아주시니 감사하기만하다”고 말했다.

또 “(내가)카톨릭 신자이긴 하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을 모셔왔고, 주위 불자들에게도 두 보살을 잘 모시라고 권유한다”며 불교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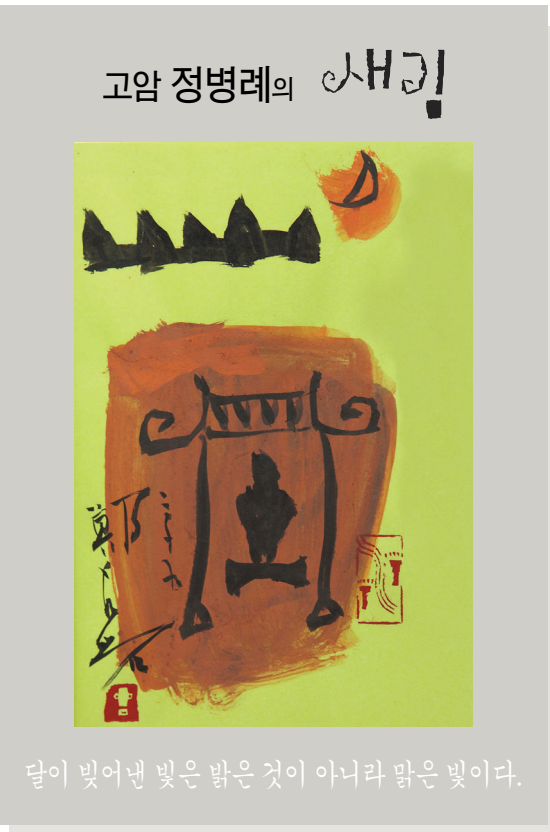
수원=허정철 기자
해인사=권순학 경남사부지사

전통불교문화원장

해오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6일 신임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장에 해오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임명장을 수여하며 “전통불교문화원은 자체 운영자립도를 높여야 하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통불교문화원장 해오스님은 “문화원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해오스님은 1980년 청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8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상임감찰과 호법국장을 역임했다. 임명 직전까지 14대 중앙총회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부안 개암사 주지를 맡고 있다. 장영섭 기자



달이 빛어낸 빛은 밝은 것이 아니라 맑은 빛이다.

밀양불교합창단 ‘2009 불교합창페스티벌’ 대상 영예

9면

社告

불교신문 2010 신춘문예 공모

불교신문은 불교문학 신예작가 등용문인 ‘2010 불교신문 신춘문예’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불교문학에 관심 있는 신진작가들의 적극적인 응모를 기대합니다.

접수기간 : 2009년 11월16일(월)~12월16일(수)까지
공모대상 : 불교문학에 관심이 많은 신진작가
공모분야 : 단편소설-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시조-각 5면, 동화-원고지 30매 내외, 평론-원고지 60매 내외
당선작은 각 분야에서 1편을 선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작 선정

상 금 : 단편소설 450만원, 동화/평론 각 350만원, 시/시조 250만원

당선작 발표 : 2010년 1월 1일 불교신문 신년특집호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5층 전법회관 불교신문사 신춘문예담당

문 의 : (02)730-4488(신춘문예 담당)

불 교 신 문 사



지장 I·II 전2권
장종 지음·김진부 옮김 | 4×6배판 변형
I권 22,000원 | II권 27,000원 | 세트 49,000원(하드케이스 포함)
동국대학교출판부 02)2260-3483



지장신앙과 관련된
경전·문헌자료·불교미술의 집대성

I · 경전과 문헌자료 연구
II · 조각과 회화

“모든 증생을 제도해
마침내 그들이 보리를 증득하고
지옥이 다 밟 때까지
결단코 성불하지 않으리라”

김지장왕보살상 봉안을 기념하여 2009년 11월 20일에 출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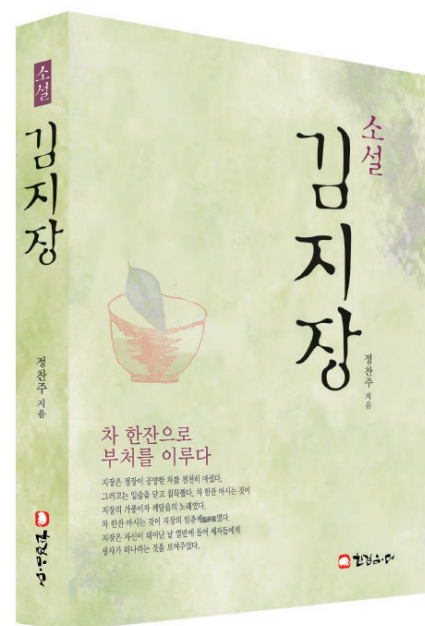


차 한잔으로
부처를 이루다

“소설 속의 화자話者가
신라 왕자 출신인 김지장 스님을 추적하는
첫 장부터 단숨에 빠져들게 하는
흡입력이 있어 잘 읽힌다.”

-법정 스님

중국 구화산으로 간 신라왕자 김지장 스님의 예인!
“천이백 년 뒤, 그때 고국의 사람들이 나를 부를 걸세.”



소설 김지장
정찬주 지음 | 신국판 변형 | 값 10,000원
도서출판 한진출판 02)2264-4705

법요식 지후
작가 정찬주 사인회를
갖습니다.